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야기 영원히 자리 잡길”

허대성 시인, 전시 작품 '화제'

올해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로써 우리 지역에 산재한 역사자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성있는 지역 이미지를 전해보자는 일념으로 '서동선화 사랑이야기'에 흠뻑 빠져 사는 주민자치위원이자 시인이 있어서 화제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어양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익산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허대성(50)이다.

그는 어양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어양공원에 익산을 대표하는 서동선화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한 시와 노래 가사등 40여편을 어양동주민자치위원들과 합심하여 지난해 가을부터 전시한 바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어양공원을 현재 어양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은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힘을 모아 허대성 시인, 김현숙, 유순금 씨가 재능 기부하고 손수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전시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받는 특별한 장소로 재탄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전시된 작품은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익산시의 핵심 관광자원인 서동선화의 사랑과 더불어 소재와 황진이 사랑이야기인 이선희의 '알수없어요' 노래가사, 왕궁 고도리석불입상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 합월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이야기 등 익산의 역사자원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시에 담아 낸 것이다.

허대성 시인은 "오래 전 익산시에서 전국에 절찬



올해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로써 우리 지역에 산재한 역사자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성있는 지역이미지를 전해보자는 일념으로 '서동선화 사랑이야기'에 흠뻑 빠져 사는 주민자치위원이자 시인이 있어서 화제다.

리 방영된 SBS 드라마 서동요를 통해 익산시가 1천 400년 전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있는 도시임을 알리는 서동선화의 사랑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고, 뒤이어 미륵사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되어 무왕이 익산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 했던 역사적 사실이 확실히 존재하여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며 작년 관광원년을 선포한 익산

시가 올해 미륵사지국립박물관 착공, 서동생가터 복원과 전국체전, 서동축제, 국화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국경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야기가 영원히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 어양공원에 사랑 작품을 전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사이다토론방 개설 · 조직문화 개선 박차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22일부터 직원 상호간, 책임직과 직원간, 우정청과 우체국간의 원활한 소통과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부내 행정망에 '사이다토론방'을 개설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사이다토론방'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방식 개선과 조직내 타파해야할 근무행태, 건의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격의없는 소통과 토론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개설했다.

김성철 청장은 "앞으로 사이다토론방의 게시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적극 반영해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효자1동 주민자치위원장 이 · 취임식 열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장단 등 지역 주민을 모시고 집인 박삼권, 신임 심성욱 주민자치위원장의 이·취임식을 열었다.



신임 심성욱 위원장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봉사정신으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전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으로 자질을 인정받아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새로운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한편 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나눔행사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앞장서 왔으며 관내 환경 정비활동 및 취약지역에 점검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채규남 기자

덕진구 조촌동 동네기획단 1월 정기회의 가져

덕진구 조촌동 동네기획단은 지난 18일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2018년 1월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새해를 맞이해 처음 갖는 모임으로 신규사업 논의, 분과위원회 개설, 위원 위촉 및 해촉 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다.

조촌동 동네기획단은 2017년 미등록 경로당에 밀반찬을 지원, 홀로 어르신 50명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어르신 실버카 지원, 밀반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던 회의를 2달에 한 번씩 활동하기로 했다.

동네기획단 윤승기 위원장은 "2018년에는 더 많은 후원을 모집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을 발굴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호성동 초청교회, 취약가구에 백미 · 라면 기탁 나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초청교회는 지난 19일 설맞이법일을 맞아 관내 홀로어르신 등 취약가구에 백미(10kg) 100포, 라면 100상자를 기탁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호성동 초청교회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으로 매주 수요일 관내 어르신 200여명에게 중식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성동 어르신 경로잔치 장소 제공 및 봉사에 참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채규남 기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우수운영자 상품 전달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모양지구대는 최근 아동안전 및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지역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방문해 지난해 우수운영자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그간의 수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주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문구점, 약국, 편의점, 어린이집 등 아동의 출입이 용이한 사업장으로 범죄로부터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 긴급 보호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모양지구대 관내에는 10개소의 지킴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모양지구대는 "앞으로도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의 치안협력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운암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임실군 운암면이 오강민족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운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함양과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5종목을 선정해 2월부터 개강한다.

올해 선정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고 배우보고 싶어하는 농악과 난타, 게이트볼, 정보화교육, 의료체조 등으로 연중 운영한다.

운암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의 문화생활과 견줘도 뒤쳐지지 않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봉사 내방

- ▲ 이철수 완산구청장
- ▲ 김기평 덕진구청장
- ▲ 백순기 복지환경국장
- ▲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
- ▲ 안도식 사회적경제지원담당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순홍)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52-3886	고창지사 563-688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52-3886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9157
호지사 010-664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5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D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극복한 고수 1000명

지난 4월 전주 우원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원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